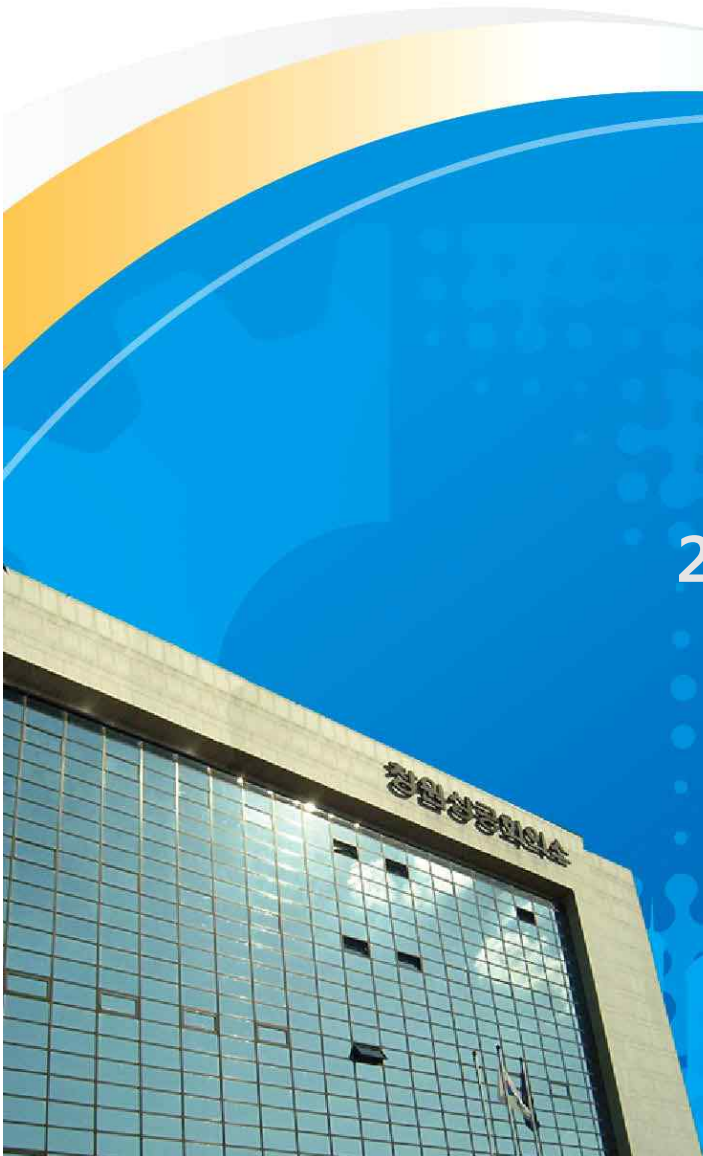
Changwo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hangwon CCI

창원지역 자동차산업 동향 조사

2019. 7.



창원상공회의소

Contents

Ⅰ. 조사개요 1

Ⅱ. 요약 및 시사점 2

Ⅲ. 조사결과 4

1.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자동차 산업 비중 4

1) 전국 대비 창원 제조업 비중 4

2) 창원 제조업 업종별 비중 6

3) 창원 자동차산업의 업종별 비중 9

2. 활동성으로 본 창원 자동차산업 12

3. 창원 자동차부품 수출 14

4. 창원 자동차산업의 인력구조 및 노동 유연성 19

<부 록> 22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창원지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동 산업 지원정책 마련의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함.

2. 조사방법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자료 분석

3. 조사기간

2019년 6월 3일 ~ 6월 28일

4. 조사사항

- ○ 창원 자동차산업 업체 수 현황과 비중
- ○ 창원 자동차산업 업체 활동성
- ○ 창원 자동차산업 근로자 수 현황과 비중
- ○ 창원 자동차산업 인력 구조
- ○ 창원 자동차산업 근로자 유출입 비중
- ○ 창원 자동차산업 수출실적과 특성

Ⅱ. 요약 및 시사점

◎ 조사요약

○ 창원 자동차업종 업체당 근로자 수 32.9명, 창원 전체 13.7명

- 창원은 경기도 화성시와 시흥시 등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체와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이며, 업체당 근로자가 13.7명(화성시 8.7명, 시흥시 6.1명)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이 밀집한 산업도시로 고용환경 변화에 밀접한 영향 받는 지역
- 창원 제조업 중 자동차업종(2019년 1분기 기준),
  업체 수 546개, 기계·금속가공·전기장비 제조업에 이어 4번째
  근로자 수 11만 919명, 기계장비 제조업에 이어 2번째
- 업체 수 기준, 창원 제조업의 6.8%, 전국 자동차업종의 4.7% 차지
  근로자 수 기준, 창원 제조업의 15.5%, 전국 자동차업종의 8.4% 차지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기준, 창원 제조업의 각각 16.3%, 13.3% 차지
- 자동차업종 업체당 근로자 수 32.9명(제조업 전체 13.7명)로 높은 수준
  개별 기업이 창원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커
- 창원 자동차업종의 신규설립 비율, 전국 자동차업종 대비 하회
- 최근 10년 간 업체당 근로자 수 감소추세, 창원 제조업 소규모화 진행중

○ 창원 자동차산업,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량 증감에 영향 커...

- 업체 수와 근로자 수, 국내 완성차의 해외 생산량과 맞물려 증감
- 자동차부품 수출, 중국·미국·멕시코·인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현지 생산공장이 입주한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
- 90년대 후반 시작된 해외 자동차 생산, 2013년 기점으로 국내생산량 상회
- 중국이 전체 해외생산(2018년 기준)의 28.8%로 최다, 인도 17.6%, 미국 13.9% 순

○ 창원 자동차업종, 노동 유연성 낮은 수준...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창원 자동차업종은 1차금속과 더불어 취업 및 퇴직 비율이 낮은 수준,
  근로자의 유출입 낮은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는 것과 타 업종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

- 제조업 연령별 분포, 자동차업종과 기타 운송장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은 역삼각형 구조
- 자동차업종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30년 이상 8.5%(전체 4.1%), 20~29년 15.4%(8.7%)로 높은 수준

◎ 시사점

· 창원의 자동차업종은 지역 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량 증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최근 해외생산량 감소와 현지조달 등의 영향으로 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산업의 트렌드 변화와 국내외 완성차 수요 둔화 등으로 창원의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더욱이 전국 자동차업종의 신규설립과 비교해 창원의 자동차업종의 신규설립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산업이 창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완성차업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창원은 자동차의 기타부품(기어박스 부품, 공조기, 조향장치 등) 제조업이 밀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를 개별 수출과 더불어 협업을 통한 모듈화로 부가가치와 마케팅 극대화를 꾀할 필요도 있음. 기존 창원의 자동차부품과 결합해 모듈화를 이룰 수 있는 기업이나 제품을 유치하는 활동도 필요함. 이를 통해 곧 현지 부품 조달에 대한 대비와 해외 완성차 업체로의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더불어 인력구조에 있어 고령화의 진행 정도가 매우 높아 향후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재배치 및 신규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Ⅲ. 조사결과

1.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자동차 산업 비중

1) 전국 대비 창원 제조업 현황

○ 2019년 1분기 기준 창원시 제조업 업체 수[1]는 8,067개임.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경기 화성시(1만 8,953개), 경기 시흥시(1만 1,919개), 경남 김해시(9,733개), 경기 김포시(9,402개), 경기 안산시(9,045개) 등과 더불어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임.
창원시와 김해시 이외에도 경남은 양산시(3,358개), 함안군(2,517개), 진주시(1,473개), 거제시(1,387개) 등에 걸쳐 제조업체가 다수 소재해 있음.

○ 더불어 창원시의 제조업 근로자 수[2]는 11만 919명으로 경기 화성시(16만 5,336명), 경기 수원시(13만 815명), 서울 영등포구(11만 7,459명), 경기 안산시(10만 2,886명) 등과 더불어 제조업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임.
제조업 업체 수를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번째에 해당하지만, 제조업 근로자 수는 4번째에 위치함.

○ 창원의 제조업 업체 당 근로자 수는 13.7명으로 제조업이 밀집한(상위 10개 지역)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음. 이는 대규모 장치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창원에 비교적 큰 규모의 제조업체들이 소재해 있음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창원의 제조업이 고용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임을 의미하기도 함.

---

1) 본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DB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즉 본 보고서에서 쓰이는 사업장(업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임.

2) 본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근로자의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중 3개월 미만 계속 근무하는 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됨.

○ 창원의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제조업에 종사(10.5%)하고 있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 김해시와 더불어 제조업 업체 수, 제조업 근로자 수, 인구대비 제조업근로자 비중 등에 있어 제조업 산업도시로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기초 지자체별 제조업 근로자 및 업체 수(2019년 1분기 기준)

	기초 지자체명	제조업 근로자 수	인구대비 비중	기초 지자체명	제조업 업체 수	업체당 근로자 수
1	경기 화성시	165,336 (62.0%)	21.3%	경기 화성시	18,953 (40.2%)	8.7
2	경기 수원시	130,815 (45.4%)	11.7%	경기 시흥시	11,919 (42.0%)	6.1
3	서울 영등포구	117,459 (26.8%)	31.8%	경남 김해시	9,733 (38.7%)	7.0
4	**경남 창원시**	**110,919 (43.5%)**	**10.5%**	경기 김포시	9,402 (38.9%)	5.3
5	경기 안산시	102,886 (55.3%)	15.6%	경기 안산시	9,045 (29.1%)	11.4
6	서울 서초구	75,195 (19.5%)	17.4%	경기 부천시	8,225 (25.6%)	5.9
7	경기 시흥시	72,716 (58.7%)	15.9%	**경남 창원시**	**8,067 (19.9%)**	**13.7**
8	경남 김해시	68,609 (53.8%)	12.8%	인천 서구	7,098 (31.9%)	7.3
9	경기 평택시	66,745 (46.3%)	13.4%	인천 남동구	6,659 (30.1%)	10.0
10	인천 남동구	66,397 (47.8%)	12.4%	부산 강서구	6,070 (45.2%)	8.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 )는 전체 근로자 및 업체 수 대비 비중

2) 창원 제조업 업종별 비중

○ 창원 소재 제조업체 수는 2019년 1분기 기준 8,067개임.
이 중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3,244개로 창원 전체 제조업의 40.2%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96개(12.3%), '전기장비 제조업' 861개(10.7%),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546개(6.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47개(5.5%) 순임.

○ 창원 제조업 근로자 수는 2019년 1분기 기준 11만 919명임.
업종별로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3만 988명으로 전체 28.1%를 차지해 가장 많고,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1만 7,968명(16.3%), '전기장비 제조업' 1만 2,843명(11.7%), '1차금속 제조업' 1만 1,446명(10.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만 113명(9.2%) 순임.

○ 업종별 업체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은 꾸준히 업체 수와 비중이 증대하였음. 하지만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의 경우 2013년 2분기 659개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 수도 함께 감소했으며, 비중 역시 줄었음.

○ 창원 주요 제조업별로 '1차금속 제조업'이 71.5명으로 업체당 근로자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32.9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6명, '전기장비 제조업' 14.9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명, '금속가공 제조업' 8.0명 순임.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과 '1차금속 제조업'이 업체당 고용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업종의 기업이 창원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창원 주요 제조업 수

(단위 : 개사, %)

순번	업 종	'13 1Q		'16 1Q		'19 1Q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1	기계 및 장비	2,559	35.3	3,224	40.1	3,244	40.2
2	금속가공제품	1,074	14.8	1,037	12.9	996	12.3
3	전기장비	712	9.8	812	10.1	861	10.7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649**	**8.9**	**594**	**7.4**	**546**	**6.8**
5	기타 운송장비	506	7.0	559	6.9	447	5.5
6	전자부품, 통신장비 외	316	4.4	295	3.7	279	3.5
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외	186	2.6	211	2.6	224	2.8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90	2.6	211	2.6	213	2.6
9	식료품	117	1.6	166	2.1	199	2.5
10	1차 금속	260	3.6	168	2.1	160	2.0
	전 제조업	7,235		8,041		8,067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비중은 창원 제조업 내 비중

창원 주요 제조업 근로자 수

(단위 : 개사, %)

순번	업 종	'13 1Q		'16 1Q		'19 1Q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1	기계 및 장비	29,485	24.8	30,478	26.4	30,988	28.1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192**	**17.0**	**19,079**	**16.5**	**17,968**	**16.3**
3	전기장비	14,524	12.2	12,877	11.1	12,843	11.7
4	1차 금속	14,826	12.4	12,965	11.2	11,446	10.4
5	기타 운송장비	14,663	12.3	13,786	11.9	10,113	9.2
6	금속가공제품	8,122	6.8	8,731	7.6	8,070	7.3
7	전자부품, 통신장비 외	6,454	5.4	6,123	5.3	6,354	5.8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외	3,059	2.6	3,185	2.8	3,476	3.2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674	1.4	1,797	1.6	1,797	1.6
10	식료품	1,272	1.1	1,653	1.4	1,651	1.5
	전 제조업	119,089		115,559		110,919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비중은 창원 제조업 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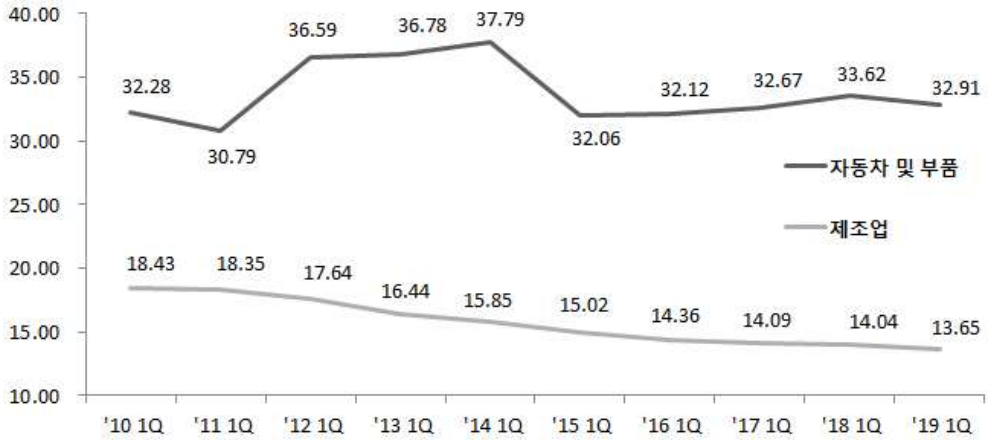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업체 수에서는 4번째를 차지했지만, 근로자 수에서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이어 2번째를 점했음. 실제로 창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업체당 근로자 수는 2019년 1분기 기준 32.9명으로 창원 제조업 평균인 13.7명과 비교해 2.4배를 보이고 있음.

○ 창원 전 제조업의 최근 10년 간 업체당 근로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체 수 증가에 비해 근로자 수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했음. 결과적으로 업체당 근로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창원 제조업이 인력 면에서 소규모화가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함.

이는 창원의 제조업이 주력산업의 장기침체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고용경직성 심화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됨.

창원 업종별 평균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개사)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가공>

3) 창원 자동차산업의 업종별 비중

○ 2019년 1분기 기준 창원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546개로 창원 전체 제조업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업체 수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산업에서의 업체 수 비중은 4.7%, 경남 31.0%를 점함.

○ 자동차 산업은 크게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 차제 및 트레일러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로 나뉨.
창원의 '자동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는 26개로 동종업계 경남 업체 수의 37.1%, 전국 3.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512개로 경남의 31.4%, 전국 5.2%를 점하고 있음.

○ 창원 자동차 제조업종의 근로자 수 기준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1분기 1만 6,757명으로 창원 전체 제조업 근로자의 15.5%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자동차 제조업종에서의 비중은 8.4%, 경남 54.9%를 점함.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 근로자 수는 3,180명으로 동종업계 경남 근로자 수의 85.3%, 전국의 2.2%를 차지했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수는 1만 4,724명으로 동종업계 경남 근로자 수의 47.4%, 전국 6.0%를 점했음.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업체당 근로자 수가 289명이며, 이는 창원 내 완성차 업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부품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는 29.1명임.

창원 자동차 산업 업체 수 비중

(단위 : 개사)

구 분	'10 1Q	'13 1Q	'16 1Q	'19 1Q
창원 자동차 산업	519	649	594	**546**
[경남 내 비중]	35.2%	34.4%	33.2%	**31.0%**
[전국 내 비중]	5.6%	5.7%	5.1%	**4.7%**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11	19	24	**26**
[경남 내 비중]	40.7%	47.5%	46.2%	**37.1%**
[전국 내 비중]	2.9%	3.4%	3.4%	**3.5%**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11	12	9	**8**
[경남 내 비중]	20.0%	17.9%	15.5%	**12.7%**
[전국 내 비중]	2.1%	1.7%	1.2%	**0.9%**
자동차 부품 제조	497	618	561	**512**
[경남 내 비중]	35.7%	34.7%	33.4%	**31.4%**
[전국 내 비중]	6.0%	6.1%	5.5%	**5.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창원 자동차 산업 근로자 수 비중

(단위 : 개사)

구 분	'10 1Q	'13 1Q	'16 1Q	'19 1Q
창원 자동차 산업	16,755	20,192	19,079	**17,968**
[경남 내 비중]	54.9%	54.4%	52.7%	**50.9%**
[전국 내 비중]	8.4%	8.2%	8.0%	**7.7%**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3,784	4,497	3,822	**3,180**
[경남 내 비중]	95.9%	95.2%	91.4%	**85.3%**
[전국 내 비중]	2.8%	3.1%	2.5%	**2.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358	252	97	**64**
[경남 내 비중]	50.0%	37.9%	17.8%	**12.4%**
[전국 내 비중]	5.5%	3.6%	1.7%	**0.9%**
자동차 부품 제조	12,613	15,443	15,160	**14,724**
[경남 내 비중]	48.7%	48.7%	48.1%	**47.4%**
[전국 내 비중]	108,214	119,089	115,559	**11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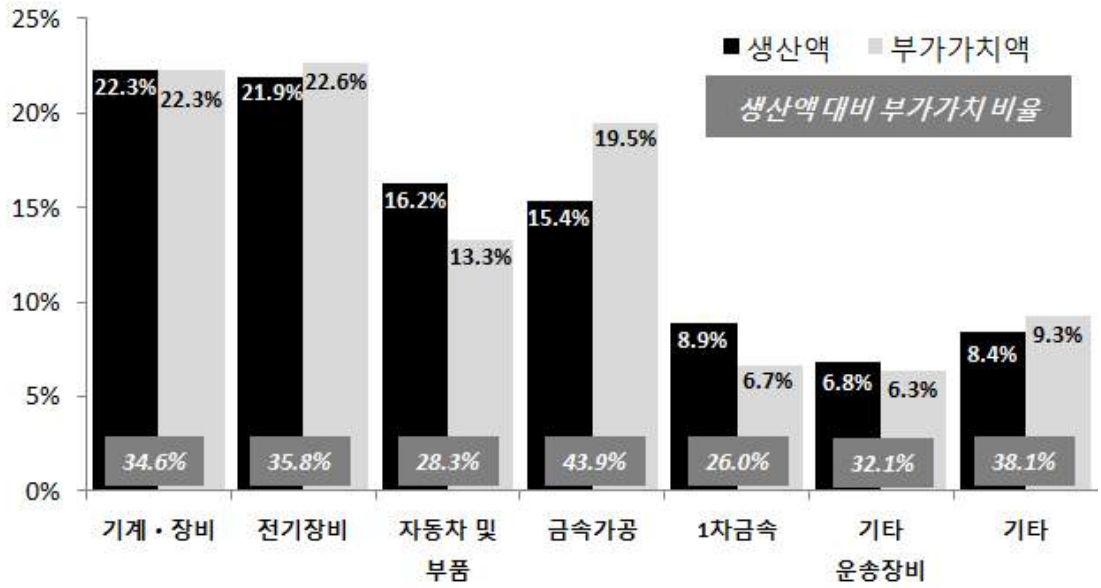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창원 제조업의 생산액은 2017년 기준 53조 3,930억 원임. 업종별로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1억 9,105억 원(22.3%), '전기장비 제조업' 11조 6,792억 원(21.9%),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8조 6,681억 원(16.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8조 2,004억 원(15.4%), '1차 금속 제조업' 4조 7,475억 원(8.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조 6,399억 원(6.8%) 등임.

○ 부가가치액은 2017년 기준 18조 4,807억 원임. 업종별로 '전기장비 제조업' 4조 1,809억 원(22.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조 1,186억 원(2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조 5,969억 원(19.5%),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2조 4,554억 원(13.3%), '1차 금속 제조업' 1조 2,329억 원(6.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조 16,86억 원(6.3%) 등임.

○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액이 가장 높은 제조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43.9%로 가장 높고, '전기장비 제조업' 35.8%로 뒤를 이었음. 하지만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은 28.3%로 창원 주요 제조업 중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창원 업종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비중(2017년 기준)



<자료 : 창원시>

2. 활동성으로 본 창원 자동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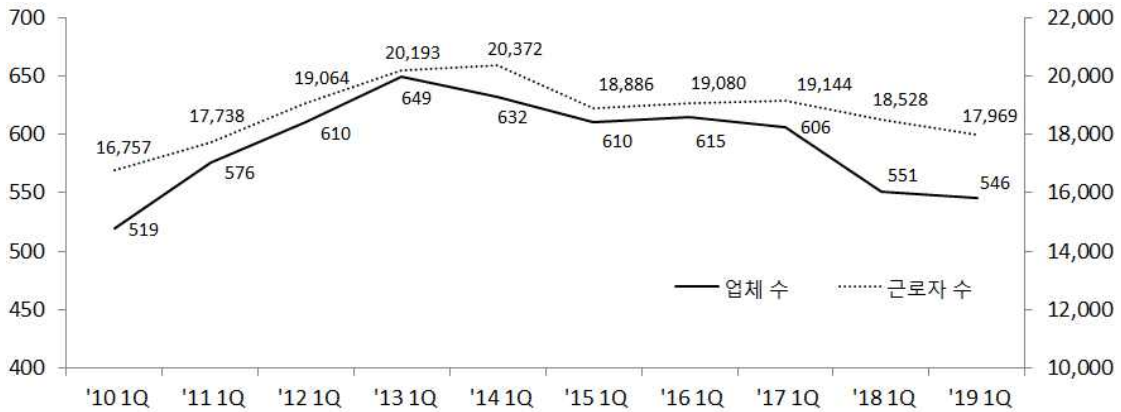
○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창원의 자동차업종 업체와 근로자 수도 함께 증가해왔으나, 2016년 국내외 완성차 수요 감소와 해외 현지 부품조달 등의 영향으로 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창원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2013년 2분기 659개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특히 2014년과 2017년 창원 자동차산업 업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음.

2014년 자동차업종의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창원 소재 자동차 업종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합병에 의해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기 때문임. 2017년의 경우 지역 완성차 업체의 경영위기와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과의 외교마찰(사드사태)의 장기화로 관련 기업들의 대거 이전 또는 폐업한 데 따른 것임. 지역 완성차업체의 경영위기 이후 이어진 생산량 감소와 국내외 자동차 수요부진이 이어지면서 업체 수는 점진적 감소를 보이고 있음.

창원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업체 및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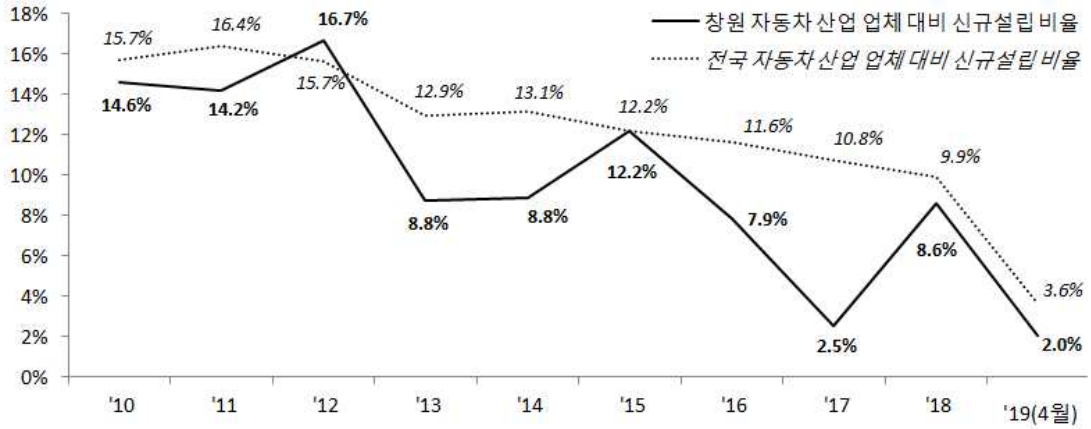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가공>

○ 자동차산업 업체수 기준 활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 업체 신규 설립비율을 보면, 창원을 비롯한 전국 자동차산업의 신규설립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임. 특히 전국과 비교해 창원 자동차산업 업체의 신규설립 비율이 최근 10년 간 2012년과 2015년을 제외하면 매년 낮은 수준임.

○ 창원은 완성차 업체가 입주해 있고, 대규모 자동차부품 업체가 밀집해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국 자동차산업 업체의 신규설립비율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입지적 이점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 보다는 국내 타 지자체의 자동차산업 유치 활동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밀집도가 약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자동차산업 업체 신규 설립 비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가공>
※ 자동차산업 신규설립 업체 수 / 전체 자동차산업 업체 수(당해말 기준)

3. 창원 자동차부품 수출

○ 자동차 업종의 업체 수는 국내 자동차산업 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량 확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국내 완성차업체가 해외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현재는 해외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 공장의 생산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2018년 창원 자동차 수출 품목 수는 HS 6자리 기준 45개(전국 86개) 품목임. 수출은 대부분이 완성차와 기어박스, 조향장치 부분품 등 기타부품이 차지하고 있음. 창원의 자동차용 차체 생산은 대부분 내수용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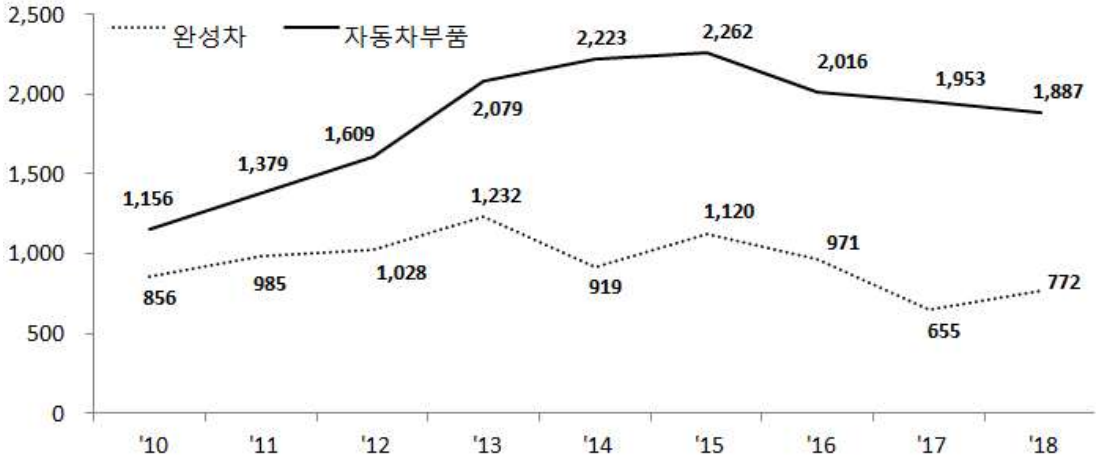
○ 창원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5년 22억 6,177만 불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감소해왔으며, 2018년 18억 8,698만을 기록했음.
완성차 수출도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교역조건 완화, 전기차 수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 2015년 이후 감소했음. 2013년 12억 3,230만 불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7억 7,242만을 기록했음.

○ 창원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중국, 미국, 멕시코, 인도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공장이 입주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018년 창원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18억 8,698만 불로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5억 4,324만 불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실제로 중국은 국내 완성차업체 해외생산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진 국가임. 다음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수출이 각각 3억 5,073만 불, 2억 3,042만 불로 뒤를 이음. 미국은 중국, 인도와 더불어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멕시코는 해외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임.[3)]

3)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공장 준공

창원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단위 : 백만불)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완성차업체의 국내 생산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해외생산의 경우 2016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2013년을 전후로 해외생산이 국내생산량을 상회했음.

○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은 1997년을 터키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인도, 중국, 미국, 슬로바키아, 체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지로 확대되었음. 2018년 기준 국내 완성차업체는 총 4,058,537대를 해외공장에서 생산했음. 이 중 중국이 1,167,784대, 전체 해외생산의 2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도 713,108대(17.6%), 미국 562,200대(13.9%), 체코 345,490대(8.5%), 슬로바키아 333,000대(8.2%), 멕시코 294,600대(7.3%), 러시아 246,500대(6.1%), 터키 203,000대(5.0%), 브라질 192,855대(4.8%) 순임.

터키(1997년), 인도(1998년, 2008년, 2019년(예정)), 중국(2002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슬로바키아(2007년), 체코(2009년), 러시아(2010년), 미국(2010년), 브라질(2012년), 멕시코(2016년)

창원 자동차 부품 국가별 수출

(단위 : 천불, %)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	809,054	**중국**	607,427	**중국**	543,237	28.8
2	**미국**	298,668	**미국**	319,662	**미국**	350,728	18.6
3	**멕시코**	224,056	**멕시코**	289,538	**멕시코**	230,422	12.2
4	**인도**	117,756	우즈베키스탄	182,766	우즈베키스탄	200,526	10.6
5	우즈베키스탄	95,117	**인도**	99,062	**인도**	95,637	5.1
6	독일	85,153	콜롬비아	84,743	콜롬비아	81,432	4.3
7	일본	81,074	일본	79,137	일본	78,016	4.1
8	콜롬비아	61,209	독일	67,552	독일	76,128	4.0
9	폴란드	34,362	캐나다	39,471	**브라질**	37,191	2.0
10	캐나다	32,032	폴란드	34,786	폴란드	32,778	1.7
11	태국	19,488	**터키**	24,454	캐나다	28,276	1.5
12	호주	18,139	태국	23,806	**터키**	27,660	1.5
13	**브라질**	16,953	**브라질**	21,612	태국	17,781	0.9
14	남아공	16,303	**체코**	12,666	**체코**	14,070	0.7
15	베트남	14,733	베트남	10,217	말레이시아	9,799	0.5
16	이집트	11,422	이란	9,169	이탈리아	9,438	0.5
17	**체코**	10,122	말레이시아	6,456	오스트리아	8,100	0.4
18	이란	8,226	헝가리	5,235	슬로베니아	7,551	0.4
19	말레이시아	6,518	에콰도르	3,989	헝가리	6,959	0.4
20	스웨덴	6,007	호주	3,730	베트남	6,139	0.3
	총계	**2,015,536**	**총계**	**1,952,590**	**총계**	**1,886,981**	

<자료 : KITA.NET>

※ 진하게 표시된 국가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공장이 입주한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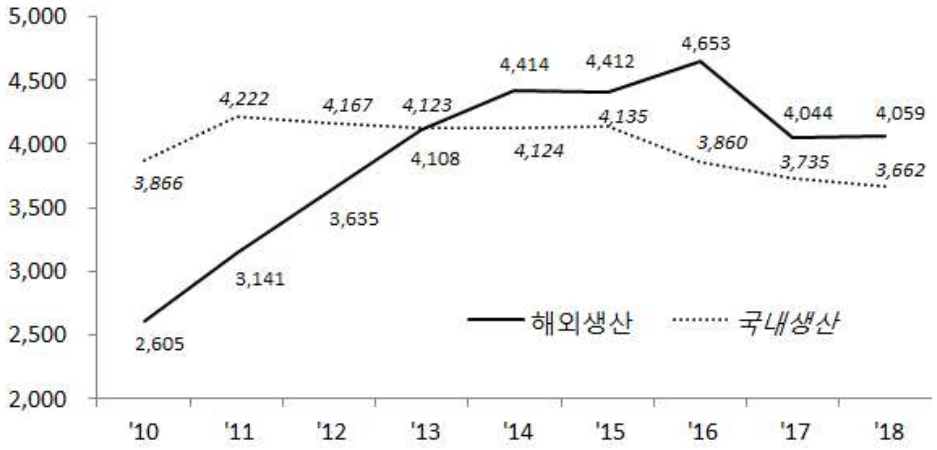
○ 2017년 해외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해외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내 생산이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외교마찰[4] 등에 의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 2016년 국내 완성차의 중국내 생산량은 182만 9,922대를 기록했으나, 2017년 중국과의 외교마찰 후 중국 내 판매가 줄며 생산량이 118만 2,548대(35.4% 감소)로 급격히 감소했음.

○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량, 특히 중국의 해외생산량 변화에 따라 창원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물론 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중국 내 생산량은 2010년 40.1%를 차지했으며 2014년 40.4%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한 후, 2017년 이후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발생 한 후 생산량이 감소(2016년 대비 2017년 생산량 35.4% 감소)한 것과 인도,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중국 내 생산비중이 2018년 기준 28.8% 수준으로 비중이 축소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국내 완성차의 해외생산량은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내 및 해외 생산량 동향

(단위 : 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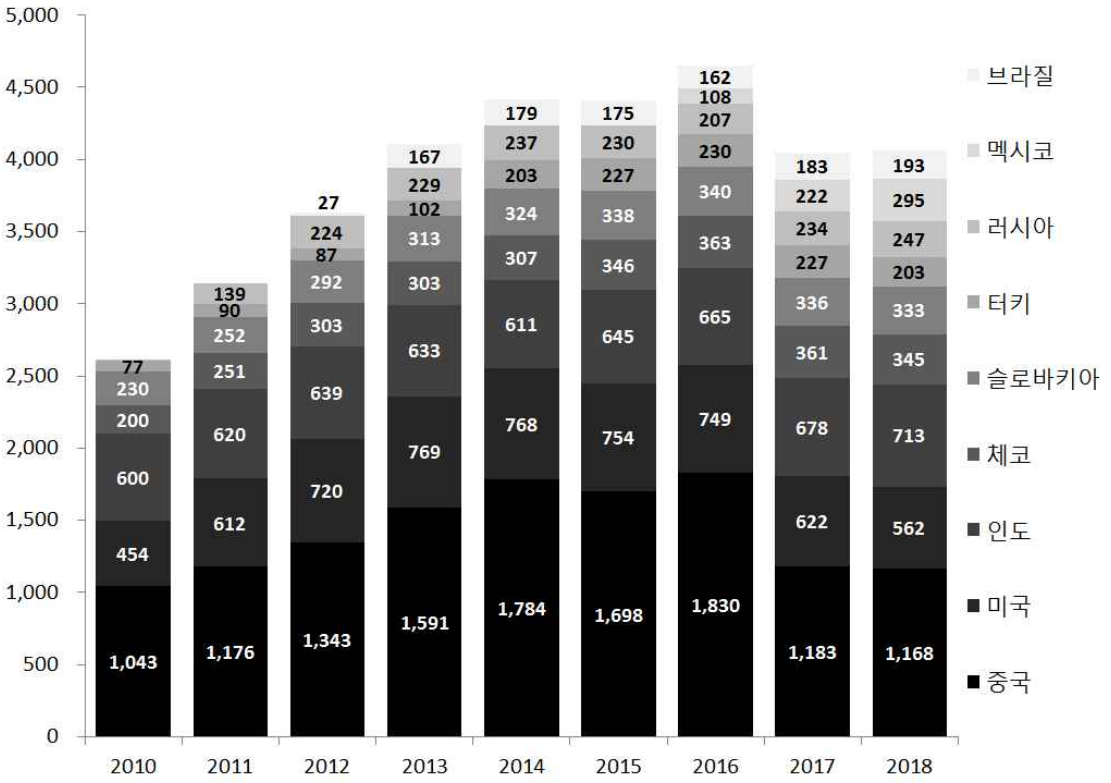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2017년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가별 해외생산 동향

(단위 : 대)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중국 내 생산량이 감소한 2017년부터 2018년 간 2년 사이, 연간 생산량이 36.2% 감소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은 6.4%, 업체 수는 10.4%, 근로자 수는 2.9%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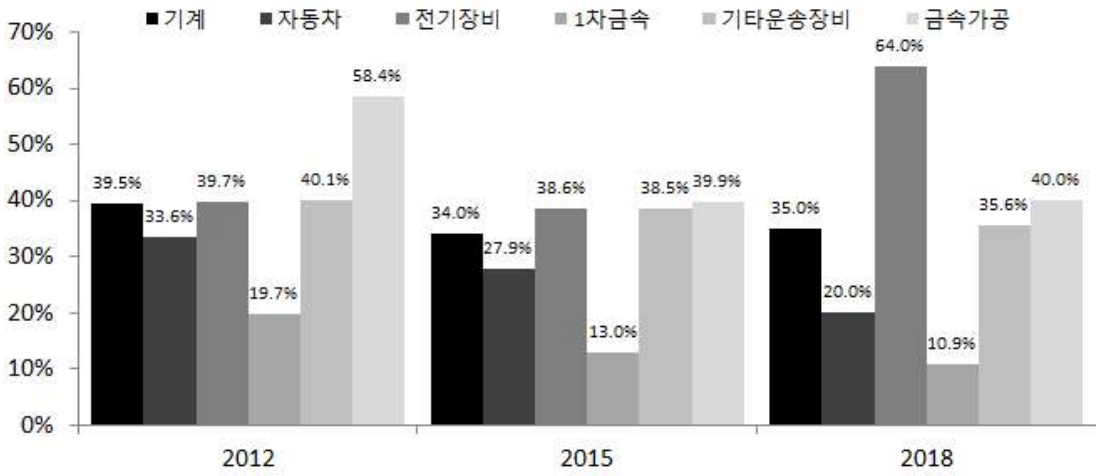
반대로 꾸준히 중국내 생산량이 증가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를 보면, 4년 사이 연간 생산량이 71.0% 증가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은 92.3%, 업체 수는 21.8%, 근로자 수 21.6% 늘었음.

4. 창원 자동차산업의 인력구조 및 노동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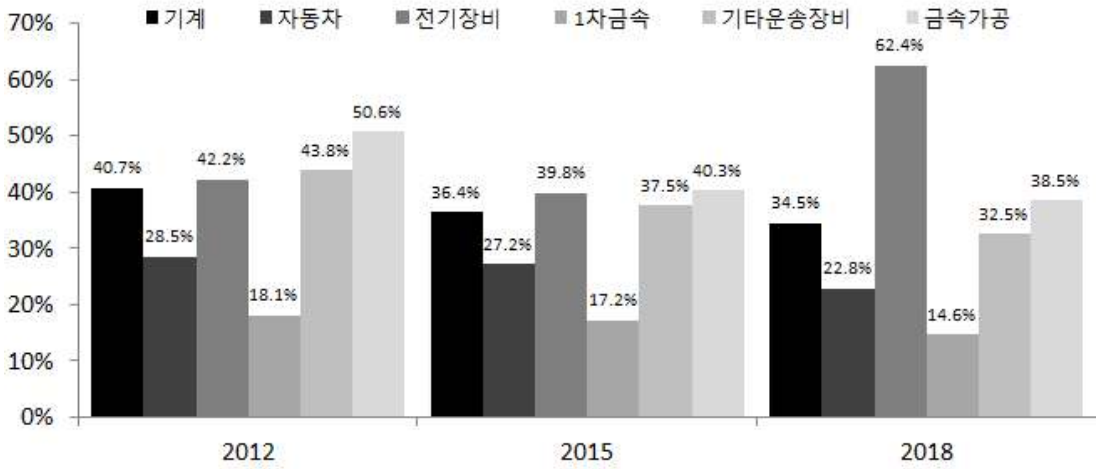
○ 창원 6대 제조업(업체수 및 근로자 수 기준) 중 자동차업종은 1차금속업종과 더불어 근로자의 유출입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임. 유출과 유입 모두 낮다는 것은 이 두 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점과 더불어 노동의 유연성이 낮은 수준임을 동시에 의미함.

창원 주요 제조업의 취업 및 퇴직 비율

· 취업비율



· 퇴직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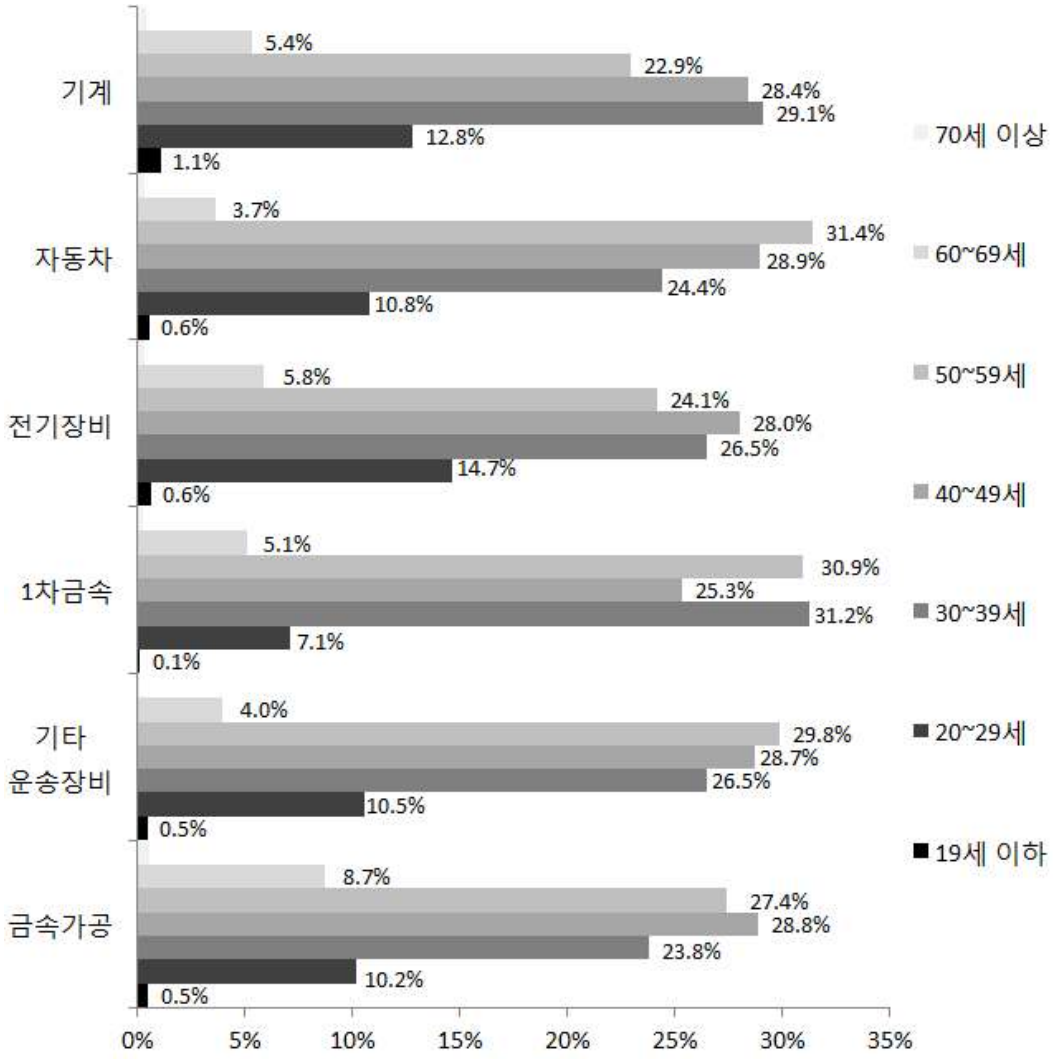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가공>

※ 비율은 신규취업(퇴직) 자 수 / 전년 말 근로자 수

○ 창원 제조업의 노동 유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업종별 취업 및 퇴직 비율을 보면, 2018년 기준 취업비율(신규취업자 수 / 전년 말 근로자 수)은 전기장비 64.0%, 금속가공 40.0%, 기타 운송장비 35.6%, 기계업종 35.0%, 자동차업종 20.0%, 1차금속 10.9%를 나타냈음.

○ 반대로 퇴직비율(퇴직자 수 / 전년 말 근로자 수)은 전기장비 62.4%, 금속가공 38.5%, 기계업종 34.5%, 기타 운송장비 32.5%, 자동차업종 22.8%, 1차금속 14.6%를 나타냈음.

창원 주요 제조업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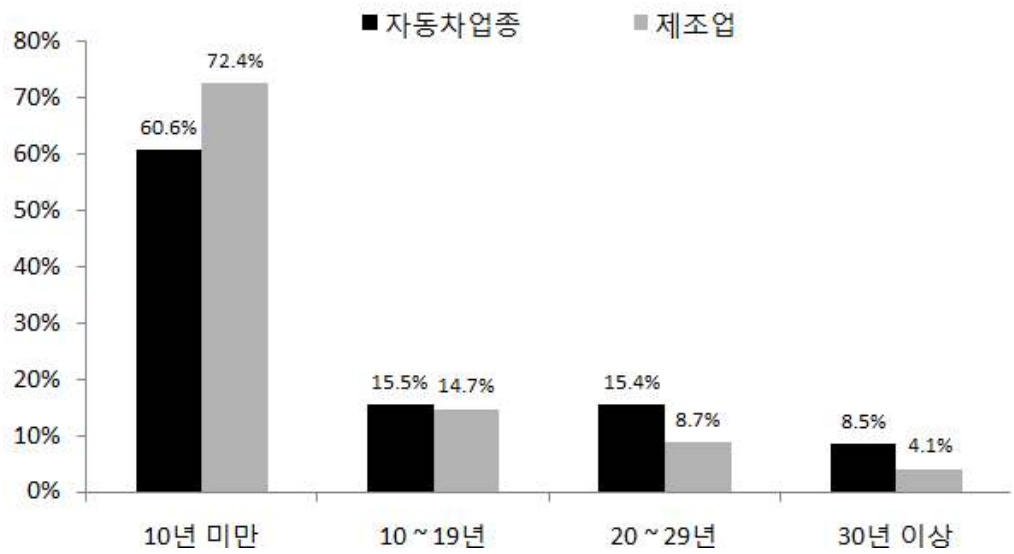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가공>

○ 창원의 6대 제조업(업체수 및 근로자 수 기준)의 분포를 보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력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업종 근로자 구성에 있어 근속연수 비중을 전 제조업과 비교해보면, 자동차업종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30년 이상' 된 근로자는 전체 8.5%로 전제조업 4.1%와 비교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또한 근속연수 '20~29년' 자동차업종은 15.4%로 전 제조업 8.7% 보다 높은 수준임.

○ 창원 자동차업종의 특성 상 업체당 근로자 수가 높은 등 규모를 갖춘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타 업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창원 자동차업종 근로자의 근속연수



<부 록>

창원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업체 및 근로자 수 추이

년월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업체 수 (개 사)	568	593	653	639	588	616	610	554	547
엔진 및 완성차	11	15	20	18	18	25	24	23	25
차체	12	12	13	13	10	12	12	9	8
부품	545	566	620	608	560	579	574	522	514
신설	83	84	109	56	52	75	48	14	47
소멸	42	54	48	50	62	49	60	34	54
근로자 수 (명)	17,770	18,733	20,167	20,419	18,854	19,134	19,330	18,908	18,397
엔진 및 완성차	3,882	4,152	4,556	4,493	3,737	3,844	3,884	3,574	3,261
차체	438	453	273	248	109	100	61	61	59
부품	13,448	14,126	15,337	15,677	15,007	15,189	15,384	15,272	15,076
취업	4,960	5,479	6,297	5,281	5,588	5,267	5,114	4,540	3,779
퇴직	4,059	4,707	5,343	4,758	5,056	5,121	5,035	5,001	4,31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통계 가공>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공장 준공 현황

No	브랜드	국가	준공	비고
1	현대	터키	1997년	
2	현대	인도	1998년	1공장
3	현대	중국	2002년	1공장
4	기아	중국	2002년	1공장(폐쇄)
5	현대	미국	2005년	
6	기아	중국	2007년	2공장
7	기아	슬로바키아	2007년	
8	현대	인도	2008년	2공장
9	현대	중국	2008년	2공장
10	현대	체코	2009년	
11	현대	러시아	2010년	
12	기아	미국	2010년	
13	현대	브라질	2012년	
14	현대	중국	2012년	3공장
15	기아	중국	2014년	3공장
16	현대	중국	2016년	4공장
17	기아	멕시코	2016년	
18	기아	인도	2019년	(예정)

창원 자동차(완성차) 국가별 수출

(단위 : 천불)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미국**	416,730	**독일**	156,697	**미국**	246,464
2	**독일**	154,875	**미국**	135,193	**이탈리아**	139,386
3	**멕시코**	88,141	**멕시코**	86,645	**독일**	114,156
4	**영국**	76,511	**이탈리아**	82,064	**멕시코**	70,625
5	**이탈리아**	56,641	**영국**	60,061	캐나다	47,272
6	이스라엘	54,826	캐나다	33,869	**영국**	30,267
7	**프랑스**	32,723	사우디	24,477	사우디	26,930
8	사우디	22,236	**프랑스**	18,225	**프랑스**	23,915
9	캐나다	21,042	이스라엘	15,782	이스라엘	21,771
10	호주	12,493	호주	7,192	리비아	7,059
11	뉴질랜드	5,784	뉴질랜드	5,389	벨기에	5,966
12	코스타리카	4,379	필리핀	3,636	UAE	5,305
13	UAE	2,919	코스타리카	3,242	뉴질랜드	4,296
14	스위스	2,736	스위스	2,941	캄보디아	3,690
15	필리핀	2,088	인도네시아	2,450	레바논	3,477
16	헝가리	1,802	레바논	1,935	코스타리카	2,628
17	파나마	1,782	UAE	1,690	필리핀	2,487
18	레바논	1,779	벨기에	1,549	카타르	2,350
19	중국	1,327	리비아	1,060	호주	1,307
20	요르단	1,172	파나마	1,005	바레인	1,136
	총계	970,742	**총계**	654,982	**총계**	772,416

<자료 : KITA.NET>